

# 대둔산 태고사 50년 중창불사 회향



◇도천스님의 원력으로 반세기에 걸쳐 진행된 도량정비불사가 마무리된 대둔산태고사.

## 극락·관음·지장전 등 완공 4일 기념법회 밀린다왕문경·법문테요 보시·방생 행사

### 도천스님 원력실현

50년간 두문불출하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행에 전념한다는 조계종 원로인 도천스님(88·화엄사조실)이 이뤄온 중창불사가 마침내 마무리 됐다.

대둔산 태고사(주지 도천)는 4월 4일 오전 10시 지장전에서 50년 불사기념법회와 만일기도회향및 천일지장기도 입재식을 봉행한다.

스승인 수월스님이 내려준 청정한 계행수지와 철두철미한 공부, 보살행의 가르침을 50년간 실천 해온 결실로 이날 도천스님은 특별히 법문도 한다.

6·25동안 당시 전소된 태고사는 77년 대웅전인 삼불전 불사의 완공을 시작으로 극락전(79년) 관음전(81년) 삼성각(84년)에 이어 88년 시작한 지장전(98년)이 완공됐으며 88년부터 시작된 백팔계단 공사는 내년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이다.

충남 문화재자료 27호로 지정된 태고사는 소실 이전의 모습을 복원키 위해 앞으로 범종각과 요사채 불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천스님은 "오직 앞으로 공부할 후학들을 위해 도량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밤낮없이 불사를 한 자가 50년이 됐다"며 "앞으로도 몸과 마음을 바쳐 쉬지않고 하부하부

정진하겠다"고 부처님전에 발원하면서 "그저 일하고 밥먹고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도천스님의 만상좌인 정안스님이 지난 68년 입재한 중창만일기도 회향식을 4일 갖고 바로 새법당 지장전에서 천일기도 입재를 하게 된다.

태고사는 50년불사를 기념하는 부대행사로 불교문답경인 <밀린다왕문경> 1만2천부 법보시와 정안스님 법문테요(2시간용) 1백20개를 모아 총 1만2천개 경보시를 실시하고 4월 28일 강원도 등명해수욕장에서 물고기 12만마리를 방생한다.

정안스님은 "십이인연을 깨치라는 뜻에서 '12'라는 숫자에 의미를 뒀다"며 "스님들의 수행과 불자들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발심도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고사는 전국 12승지의 하나로 신라 원효대사가 터를 잡고 총아사 가사 장삼을 수한체 3일간 총아사 '세세생생 도인이 끊이지 않으리라'라는 말을 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후 고려말 태고보우국사가 중창하고, 조선중기 지공대사가 삼창했다고 한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opia.com)



◇대구 보현사는 20일 평생교육대학 개원법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현판식 장면

## 대구 보현사 평생대학 열어 법당 24시간 개방...교양강좌 10여개 개설

대구 보현사(주지 지도)는 24시간 개방하는 평생 교육대학을 개설해 직장인 불자들의 효용을 얻고 있다. 20일 평생교육대학 및 신명단체 사무실 개원법회를 개최, 한지공예 상훈파주기등 10여개 교양강좌가 진행되고 있어 도심포교 및 수행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보현사 주지 지도스님은 "사찰을 24시간 개방하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교육 및 수행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3층 법당은 시민선방으로 24시간 개방하여 매일 두차례 입장시간을 갖는다.

이날 개원법회에는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 보현사 총무 유광스님, 이재우 대구남구청장, 최동원 대구신도회장, 유상종 신명단체회장, 이상번 전 대불청회장, 이달철 대구경북불교교육연합회장, 류진수 개인택시정법회장등 사부대중 8백여명이 참석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opia.com)

## 日 오부치총리 해인사 참배

### 팔만대장경 감탄·전통사찰음식 맛보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가 21일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보광)를 방문해 한국불교의 정신을 대표하는 해인사 팔만대장경에 놀라고, 한국 전통사찰음식에 감탄했다.

역대 일본총리가 방한중 해인사를 찾은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이번 방문은 불교신자로 알려진 오부치 총리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오전 10시 30분 해인사에 도착한 오부치 총리는 대적광전에서 삼배를 올린후 팔만대장경 관전을 둘러 봤다.

이자리에서 오부치총리는 "세계적으로 알선 고려의 목판인쇄 문화

에 감탄했다"면서 "이번 방문으로 양국간의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오부치 총리는 "한국불교계와 일본불교계와의 왕래가 있느냐"고 묻는 등 한일 양국 불교교류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주지 보광스님은 "오늘 좋은 인연을 맺었으니 앞으로 젊은 스님들과 청년들의 지속적인 교류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청화당으로 자리를 옮긴 오부치 총리는 "구명불견암(求明不見庵)은 깨달음으로 모든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이라고 쓴 휘호

를 해인사 원로 송암스님에게 전달했으며, 이에 송암스님은 서산대사의 선시를 직접 써서 화답했다.

이날 오부치 총리는 해인사에서 특별히 준비한 21가지 전통 사찰요리를 맛보고, 한국의 전통문화보존에 또한한 감탄했다.

점심공양에 선보인 연근곤약죽임, 고구마줄기찜, 구황관, 탕수이, 김장김치, 인삼튀김, 대추튀김, 호박선, 머위찜 등은 전통 산사 음식들이었다.

음식을 마친후 해인사 원주 정오스님은 "요리도 일종의 문화라는 생각에서 최대한 정성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해인사의 오찬처럼 한 일관게도 부드럽게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점심공양을 마친 오부치 총리는 일행은 오후 1시 해인사를 떠났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opia.com)



◇지난 21일 해인사를 방문한 일본의 오부치총리가 청화당에서 송암스님이 쓴 휘호를 받아들고 기념 촬영했다. 앞줄 오른쪽부터 해인사 주지 보광스님, 한시립 건너 오부치 총리내외, 송암스님.

## 해인사-통도사-쌍계사 관광벨트화

### 경남도 기획...전통문화 알리고 수익도 얻고

경남도가 사찰을 중심으로 관광벨트화한 관광상품 개발에 나섰다.

이같은 계획은 경남도 3대 사찰인 합천의 해인사, 양산 통도사, 하동 쌍계사를 하나로 묶어 순례코스화 한다는 것으로 일본 관광객 유치에 목적을 두고 있다.

김혁규 경남도지사는 13일 합천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1의 불전사찰인 속박·위생시설은 물론 일본인들의 정서에 맞는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라"며 사찰을 중심으로 한 관광 상품개발에 적극적인 의지

를 표명했다.

3대사찰 관광벨트화 사업은 일본인들이 고려대장경관과 불교문화에 심취했다는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에 착안하여 우리문화를 상품화하기 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일본인들은 연중 두번씩 국내의 유명사찰을 순례하며 국가와 가정의 길흥화복을 기원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opia.com)

## 혜원정사 화엄산림

### 20일간 큰스님 법문

부산 혜원정사(주지 효명)는 22일 대웅보전에서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화엄경산림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학생선원 조실 우룡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 불자들이 두가 생활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혜원정사 화엄경 산림법회는 4월 10일까지 20일간 계속되며 승공사 방장 보성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비롯하여 12명의 대덕스님을 법사로 12일간 <화엄경>이 설해진다. 천미희 기자

## 진각복지재단 낙동종합복지관 개관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대표 이사 성초)은 30일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낙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임광수)을 개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각복지 성초 총리위원장 등 중안간부들과 부산시 강서구청장 지역국회의원, 지역민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뤄진 낙동종합복지관(051-271-0560)은 치매노인 보호시설, 어린이집, 대강당, 체력단련실, 컴퓨터실, 피아노실, 어린이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으며 비형청소녀에방 치료, 치매노인 보호, 여성직업훈련고실 등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의 복지사업에 역점을 두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간다. 이경숙 기자

## 원명선원 주말수련 '호응'

웨불사건이 일어났던 제주 원명선원에서 '참 나' 찾는 선수련회가 개최되고 있어 호응을 받고 있다.

원명선원(회주 대표 스님) 참선생활 운동본부는 일반인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20일 '삼매체험 선수련회'를 개최했다. 이어 4월 17일(토요일) 오후 2시~일요일 오후 5시까지 '주말 삼매체험 선수련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매일 두차례씩

정기적으로 선수련회를 개최한다. 문의 064) 55-3322 김원우 기자

## 고산사 청년회 창립

제천 고산사(주지 환현) 청년회는 14일 응진전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회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고산사 청년회는 서울, 청주, 제천 등에 거주하는 직장인 50여명이 참여하며, 매일 들뜬 일요일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김정은 기자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파타센터

마스터 / 워드 김희경 함장  
서울 종로구 명동 45번지  
TEL: (02)396-2736 H.P: 016-228-2358

조선시대 사명대사와 승의군(僧義軍)이 마셨다는 금강산 건봉사 경내 '장군샘'이 확인됐다. 건봉사주지 해장스님이 백화암지 발굴 도중 발견한 이 샘에서 사명대사가 승의군을 모집 훈련 시키면서 이 샘물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전해내려오고 있다.

건봉사 출신인 설산스님(정토사주지)은 "당시 '장군샘', '장군수로 불리운 승군의 감로수인 샘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수량이 많고 맑은 것으로 보아 장군샘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해장스님은 "이번 장군샘 발견이 건봉사 역사복원하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명대사 행적과 연관된다"면서 "빠른시일내 샘터 주변 정리작업을 해서 불자 및 일반인들에게 생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도보권 환경연구원의 성분분석결과 장군수에는 일반세균(중온)과 대장균 녹농균 남 비스 수는 아연 카드뮴 등 유해성분47개 항목 중 36개 항목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우 기자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내용

- ① 인간의 길흥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경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로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흥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제에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후 신명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제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출현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 소재
  - 팔 괘: 고급나무 조각 목판 필라형
  - 만다라: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 그 위에 유리보따
-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해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악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경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운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액의 영향이 완전히 차려지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 본 집에서는 밤마다 잠이들었던 동안을 모두 건너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액 차단 실험은 2명의 수액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백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